

돈 안되는 질병보험 속속 폐지

보험사들, 암 보장 줄이고 보험료 올려 소비자 큰 부담

보험 상품의 암 보장이 갈수록 줄어들고 보험료도 올라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일부 보험사는 암 등 질병에 대한 보장을 축소하면서 향후 보험금 지급 부담이 덜한 사망 보장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보험료를 인상하고 있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호생명, 9월부터 '무배당 스탠바이 자기사망 암보험'의 보험금 지급한도를 종전의 절반

인 5천만원으로 줄인데 이어 다음달 6일부터 보험료를 연령에 따라 20~40% 인상한다.

또 '무배당 알뜰 자기사망 암보험'과 '당뇨병에 걸렸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무배당 스탠바이 당뇨병리니 보험'의 판매를 중단한다.

금호생명 관계자는 "스탠바이 자기사망 암보험의 경우 암 이외의 일반 사망에 대한 보험금 지급 한도를 상향 조정

하면서 보험료에 인상 요인이 생겼다"며 "당뇨병리니보험은 소비자의 역선택으로 손실 가능성이 커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동양생명은 조만간 '무배당 수호천사 다이어트 홈케어 암보험'의 보험료를 5~20% 올린다.

미래에셋생명은 기존 '웰빙 암보험III'의 수술비 지급을 없애고 사망 보험금 지급을 추가해 보험료를 20~30% 인상

한 '웰빙 암플러스'를 내달중에 판매할 계획이다.

삼성생명, 교보생명, 대한생명은 이미 암 전용 보험의 판매를 중단하고 암보험을 특약으로 붙인 건강보험이나 종신보험을 팔고 있다.

손해보험사들도 종합보험을 중심으로 암 등 일부 질병에 대한 보장을 줄이고 있다.

삼성화재는 지난 6월 '무배당 삼성 울

라이프 슈퍼보험'에 붙어있는 암 수술비 담보 특약의 판매를 중단했다.

LIG손해보험은 'LIG 엘플라워 웰빙보험'의 특약 가운데 식도암과 췌장암 등의 진단에 받을 수 있는 보험금 한도를 3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줄였다.

다른 손해보험사도 일부 질병의 보험금 지급이나 가입 한도를 축소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의료기술 발달에 따른 암 조기 진단 등으로 보험사들의 암 보험금 지급액이 늘어나면서 손실이 커질 것을 우려해 보장 한도를 축소하거나 판매를 중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부 회사는 암 진단비나 수술비 이외에 손실이 적은 사망 보장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보험료를 올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천하의 MS·구글 한국에서는 '찬밥'

윤순봉 삼성경제연구원 부사장 강연

'애플리케이션과 네트웍에 밀리는 마이크로소프트(MS) 미디어 플레이어 및 메신저, 네이버에 밀리는 구글, 아이리버에 밀리는 애플의 아이팟' 세계를 제패한 유수의 글로벌 디지털 기업들이 유독 한국 시장에서만 맥을 못추고 있다.

윤순봉 삼성경제연구원 부사장은 25일 '애플리케이션과 디지털 칸(khan)의 가능성'이란 주제의 사내 임원 특강에서 이같은 사례를 소개하며 우리나라가 디지털 부문에서 세계 지배자(칸)가 될 만한 충분한 잠재력을 갖췄다고 주장했다.

강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포털시장은 네이버, 다음, 네이트 3개 토종업체가 각각 지식검색, 미디어, 1인 미디어를 전문 영역으로 삼아 나눠 지배하고 있다. 이웃 일본 시장 1위인 야후는 우리나라에서 4위권에 불과하며, 세계 최고 검색 엔진이자 일본내 2위인 구글은 한국에선 1%대의 점유율로 아예 20위권 밖으로 밀려나 있다.

미국 경제 주간지 비즈니스위크가 네이버의 지식검색 프로그램을 '지식IN'을 한국판 위키피디아(네티즌 참여 온라인 백과사전)로 치켜 세우며 "덩치와 지명도 차이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구글이 네이버(NHN)에 맥을 못 추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망신을 줬을 정도다. '윈도'를 통해 세계 PC 운영체제를 장악한 MS도 한국에서는 고전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공무원·사학연금

내년 주식투자 17조원

내년에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 등 3개 기금의 주식투자 한도액은 17조원으로 올해에 비해 2.6배로 늘어난다.

25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이들 3개 기금의 주식투자 한도액은 내년엔 17조2천600억원으로 올해의 6조5천802억원에 비해 162.3%가 증가한다.

이에 따라 3대 기금이 한도를 소진한다면 주식투자 누계액은 올해말 16조841억원에서 내년에는 28조4천899억원으로 77.1%가 늘어난다. 내년 누계액은 작년말의 13조3천389억원에 비해서는 2.1배로 늘어나는 것이다.

기금별로 보면, 국민연금의 주식투자 한도액은 내년엔 15조7천500억원으로 올해의 5조8천억원에 비해 171.6%가 증가한다. 이 기금은 국내 11조원, 해외 4조7천500억원으로 한도를 나눠 투자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의 주식투자 누계액은 내년말 최대 27조3천950억원으로 올해말 최대 15조1천493억원보다 80.3%가 늘어난다.

연합뉴스

한국투자공사 운영위원회

시간당 100만원 수당 지급

한국투자공사(KIC)가 의사결정기구인 운영위원회를 열면서 운영위원들에게 시간당 10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패스트푸드점 등 아르바이트생들이 시간당 약 3천원을 번다는 점을 감안하면 운영위원들이 약 330배의 부가가치를 생산하고 있다는 의미다.

국회 재정위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이 25일 KIC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KIC는 운영위원회를 열 때마다 1인당 200만원의 참석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현재 미국 미시간대 교수로 재직중인 한 민간위원의 경우 운영위원회를 열 때마다 항공료·숙박료까지 부담해 회의 6회 참석에 4천521만원을 지급했다.

회당 200만원의 회의 참석비에 여타 비용으로 550만원을 추가로 내 준 것이다.

회의가 주로 오전 10시에서 12시 사이 혹은 조찬으로 이뤄져 두시간 남짓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시간당 10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 셈이다.

운영위원회는 1조원 이상 위탁한 기관의 장(재경부장관, 한국은행 총재), KIC 사장, 민간위원 6명 등 9명으로 구성됐다.

연합뉴스

부영 임대 아파트 1,364가구 분양

(주)부영이 25일 광주 첨단지구 임대아파트 1천364가구 분양에 들어갔다.

이 아파트는 광주시 광산구 산월동 886-1번지에 지어지며, 14~15층 규모로 18개동에 35평 단일 평형으로 구성된다. 입주는 6차의 경우 다음달부터, 7차의 경우 12월이던 가능하다.

청약접수는 ▲1:2:3순위는 25일 마감했으며 ▲선착순 계약은 27일부터 농성동에 위치한 견본주택에서 이뤄진다.

분양가는 전세조건으로 임대계약할 경우 임대보증금 1억1천만원이며, 분양조건부 임대차 계약을 할 때는 공급가격 1억8천200만원으로 2년 6개월 거주후 공급당시 가격으로 분양가는 조건을 병행한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할인률 높은 무사고 운전자 대형손보사 보험 가입 기피

금감원 국감 자료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동부화재, LIG손해보험 등 4대 대형 손해보험사들이 할인혜택이 높은 장기 무사고 운전자의 보험 가입을 크게 줄인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 감사원이 25일 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4대 대형 손보사들은 2002회계연도 이후 자동차보험료 40만원 이하인 장기 무사고 운전자 가입자 수를 크게 줄였다.

삼성화재의 경우 2002년 보험료 40만원 이하 계약 건수는 전체의 41.4%인 172만건에 달했으나 2003년 168만건(40.6%), 2004년 157만건(37.6%), 2005년 142만건(35.5%)으로 4년 연속 감소했다.

또 현대해상도 2002년 전체 계약 건수의 40.5%인 75만건이 보험료 40만원 이하였으나 2003년 72

만건(40.0%), 2004년 67만건(36.9%), 2005년 71만건(35.8%)으로 무사고 운전자 비중이 줄어들었다.

동부화재는 2002년 전체 자동차 보험 계약 건수 191만건의 43.11%인 82만건이 보험료 40만원 이하 계약이었으나 2003년 75만건(40.81%), 2004년 67만건(36.43%), 2005년 72만건(36.16%)을 기록했다.

LIG손해보험도 40만원 이하 무사고 운전자와 계약한 건수가 2002년 71만건(43.2%), 2003년 72만건(42.7%), 2004년 64만건(39.0%), 2005년 63만건(35.8%)으로 전체 비중이 갈수록 감소했다.

이는 무사고 운전자의 할인 혜택이 너무 높아 보험료 수입은 적은 반면 보험금은 똑같이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달려라 내 차!” 2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막된 대한민국기술대전 모형자동차 라인트레이서 경진대회에 참가한 어린이들이 경기에 앞서 초조한 모습으로 직접 만든 자동차를 테스트하고 있다.

연합뉴스

3분기 성장률

0.9%

한국은행 발표

민간소비 지출이 둔화하면서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의 전분기 대비 성장률이 0.9%에 그쳤다.

작년 동기 대비 성장률은 4.6%에 머물렀으며 2분기 이후 경기 둔화세가 본격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 무역손실액은 18조8천억원으로 분기 기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은이 25일 발표한 '2006년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에 따르면 3분기 실질 GDP는 전분기에 비해 0.9% 성

장률을 보여 2분기 연속 성장률이 1%를 밑돌았다.

전분기 대비 GDP 성장률은 작년 4분기 1.6%, 올해 1분기 1.2%에 이어 2분기 0.8%로 떨어졌으며 3분기에도 0.9%를 나타냈으므로 2분기 이후 경기 둔화세가 본격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작년 동기 대비 성장률도 4.6%에 그쳐 작년 3분기(4.5%) 이후 1년 만에 가장 낮은 성장률을 보였다. 이처럼 성장률이 둔화한 것은 건설투자가 증가세로 반전되고 설비투자가 호조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소비와 서비스업의 증가세가 둔화했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3분기의 민간소비 증가율은 전분기 대비 0.5% 성장해 작년 1분기(0.5%) 이후 6분기만에 가장 낮은 성장세를 보였다.

서비스업도 도소매 및 음식음료업 등의 증가세가 주춤하면서 전분기 대비 0.5% 성장하는데 그쳐 2004년 4분기(0.4%) 이후 성장률이 가장 낮았다.

반면 건설투자는 토목건설 투자를 중

심으로 전분기 대비 2.3% 성장해 증가세로 반전됐고 설비투자도 3.1% 증가해 호조를 보였다.

이에 따라 내수(제고 제외)의 GDP 성장기여도는 전분기 0.3%포인트에서 1.1%포인트로 높아진 반면 순수출의 성장기여도는 전분기 0.6%포인트에서 0.0%포인트로 낮아졌다.

국제유가 급등의 여파로 교역조건이 악화돼 실질 무역손실액이 18조7천965억원으로 분기 기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은 관계자는 "최근 유가 상승폭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지만 유가 수입 계약 당시 기준으로 지표가 작성되기 때문에 최근의 유가 상황은 4분기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내총소득(GDI) 성장률은 -0.2%로 을 들어 1분기(-0.4%)에 이어 두 번째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다. GDI는 전년 동기 대비로도 1.6% 증가에 그쳤다.

연합뉴스

본격 경기 둔화

등기 우편물 100통 중 5통 반송

우정사업본부 국감

우편물 100통 가운데 2통 가량이 수취인에게 전달되지 못하고 반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반 우편물에 상대적으로 중요 서류 등이 담겨있는 등기 우편물의 경우 100통 중 5통 안팎이 반송되고 있어 개인 정보 유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5일 우정사업본부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신기남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올해 9월 말까지의 배달 우편물 151억6000만통 가운데 2억8천600만통(1.89%)이 반송된 것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

연도별로 2004년에는 전체 배달 우편물의 1.8%에 해당하는 1억600만통이 반송됐으며 2005년에는 전체 배달 우편물의 1.9%에 해당하는 1억300만통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다. 올 들어 9월까지도 반송된 우편물은 7천700만통으로 전체 배달 우편물의 1.9%에 달했다. 올 들어 9월까지의 반송 우편물 유형을 보면 이사로 인해 반송된 우편물 비율이 29.5%로 가장 높았으며 수취인 불명(21.7%), 주소불명(21%), 수취인 부재(8.8%) 등의 순이었다.

또 지난 2년 9개월간 등기우편물의 반송률은 5% 안팎으로 일반 우편물의 반송률보다 훨씬 높았다.

역시! 한국 조선업

올 상반기세계시장 35% 이상 점유

한국 조선업계가 올 상반기 수주량, 수주잔량, 건조장에서 모두 35% 이상의 점유율로 세계 시장을 독식한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조선·해운 통계 전문분석기관인 로이드에 따르면 한국은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선박 수주량, 수주잔량, 건조장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각각 41.94%, 36.4%, 35.8%로 모두 35% 이상을 기록하며 일본, 중국, 유럽연합(EU)을 누르고 1위에 올랐다.

이같은 수치는 한국이 이들 세분야에서 모두 37% 이상 점유했다는 조선·해운 통계기관 클락슨의 최근 통계 결과보다 다소 떨어지지만 경쟁국들에 비해서

는 월등히 앞서 한국이 조선 분야 세계 1위임을 다시 입증했다.

특히 한국은 올 상반기 수주량에서 경쟁국들을 압도했다.

한국은 올 상반기 전세계 수주량 2천881만CGT 가운데 1천205만8천CGT를 차지해 점유율 41.9%로 2위 일본(554만4천CGT,19.2%)보다 무려 두배 이상 많은 실적을 올려 세계 조선업계를 놀라게 했다.

최근 조선업을 정책적으로 키우고 있는 중국(532만5천CGT,18.5%)과 EU(212만8천CGT,7.4%)마저도 수주량에서는 한국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

연합뉴스

함께 일합시다

Recruiting Gwangju Network 062.JOBKOREA.CO.KR

업 제 명	모 집 분 야	자격 및 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금호생명	금호생명 남녀 상담원 모집	고졸/경력무관	3600~3800	10/26	062-360-5203
명품백지 did	명품백지 did 광주영업소 경력사원 채용	대졸/경력1년	회사내규	10/27	02-2141-3567
이시스코리아	품질관리 주부사원모집	고졸/경력무관	1200~1400	10/27	062-365-9900
지비씨 유통	매장관리 - 사무관리-영업관리	초대졸/경력무관	1400~1600	10/29	062-350-8170
뉴바이오	사무관리/총무 사원 모집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0/30	062-973-6995
정광금속	도금공정 관리 및 도금액 분석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0/31	062-955-6081
한진기공	기계설계기 사원모집	초대졸/경력4년	2200~2400	10/31	011-649-9111
한글과 컴퓨터	컴퓨터 방화벽도조사 모집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0/31	062-366-7220
선진일미	제조업 경리업무	대졸/경력무관	1200~1400	10/31	062-956-4780
웅진씽크빅	광주시내 초등학교 특기적성 컴퓨터 강사 모집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0/31	062-456-2143
이트랜드	서버네트워크코보안 서버유지보수	초대졸/경력무관	1600~1800	10/31	062-529-3300
전시연구소이텍	카드설계 및 현장감리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1/02	062-433-1005
햇시스	기술영업(본세)/광주영업소(책임자급)	고졸/경력2년	회사내규	11/03	031-495-4381
이인텔레서비스	LG텔레콤 고객센터 정규직 상담사 모집	초대졸/경력무관	1600~1800	11/06	062-601-7203

(광주직접리아 512-6210 제공)